제329회국회
(정기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1월27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1
   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년 후 2018년 2월, 3월에 개막할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현황, 경기장 및 대회 관련 시설과 기반시설의 공사 진행상황, 경기 운영 기반 및 대외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양호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양호 위원장님은 지난 8월 5일부터 조직위원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

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10시14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오늘 보고 주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 번의 실패 끝에 강원도민과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유치에 성공한 평창올림픽의 개막이 어느새 3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

츠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와 함께 올림픽대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회 준비상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난 후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과 관련된 준비상황을 보고드린 후 강원도가 대회 시설 준비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일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장애인올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대회 개최지는 평창과 정선, 강릉입니다.

개·폐회식장이 건설되는 평창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이 30분 내의 거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치동계올림픽에는 88개국이 참가했지만 평창에는 100개국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법령 현황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3조 1419억원입니다. 이 중 경기장 진입도로, 철도, 고속도로 등 대회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11조 879억원이고 대회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2조 540억원입니다.

대회 지원을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정부는 경기장과 대회 관련 시설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경제적인 시설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최지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모든 대회 시설이 선수와 관객 중심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및 대회 관련 시설 준비 현황입니다.

신설되는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남녀 아이스하키 경기장 등 4개 빙상경기장과 슬라이딩센터,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은 금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후 활용 방안 및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 4개 빙상경기장은 재설계 또는 설계변경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장은 4만 석 규모로 평창 횡계리에 새로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본격적인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창선수촌은 용평리조트가, 강릉선수촌과 미디어촌은 LH공사가 각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평창미디어촌은 기존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의 숙박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제방송센터와 메인프레스센터는 현재 조직위에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대회 교통망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과 진부를 고속철도로 93분에 연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기장 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 확충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추가로 필요한 노선에 대한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관광올림픽 추진 방향과 대회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관광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문화올림픽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 때 우리의 자랑이 될 만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임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최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올림픽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강원도가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광 지원사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올림픽특구사업의 제반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특구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40개 사업 중 현실성이 떨어지는 15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13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회 준비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대회 준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인 강원도 간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문체부장관 강원도지사 조직위원장 3자간 올림픽조정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만나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내 올림픽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대회 준비 단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조직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지원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 주재 평창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현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대회 흥행과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도 동계종목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국가대표는 물론 평창올림픽에서 활약할 2018 올림픽팀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종목별 특성에 맞는 전문 지원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가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훈련시설을 지원하고, 국외전지훈련,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제경기대회가 단순히 자국에서 개최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환호해 주지 않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회 주체들이 더욱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올림픽 시설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림픽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수와 자연의 아름다움, 앞선 기술력을 지구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이로 인한 혜택이 지역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종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조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입니다.

각종 의정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조직위 대회 운영 준비 전반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위원장으로서 올림픽 유치에 이어 지난 8월 다시 조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 데 대해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간 정부 강원도 개최도시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조직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착공이 지연되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지난달 말 착공되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개·폐회식장 건립 문제도 관계 기관 간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 건설이 정상 추진되도록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위도 그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해 개·폐회식 행사, 선수촌·미디어촌 건설, 운영 인력 확보, 대회 홍보 등 분야별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의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위원회에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강원도 개최도시는 물론 IOC·IPC·IF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최고의 대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대회 1년 전 개최되는 테스트 이벤트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올림픽 기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아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위도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올림픽 패밀리를 위한 세법 개정과 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정부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대회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대회 준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회 기본계획, 기능별 운영계획 등 대회 준비에 필요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 스케줄을 통해 준비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패럴림픽을 고려한 대회 준비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 마스터 스케줄 관리 등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합 운영하고, 평창 패럴림픽데이 행사, 접근성 매뉴얼 마련 등 패럴림픽 인식 제고와 접근성을 개선해 동계 장애인스포츠 발전을 넘어 사회 통합이라는 올림픽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와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IOC·IPC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 대회 준비 상황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대회 노하우 및 지식 전수 활동을 통해 대회 개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상의 경기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운영요원 양성, 국내외 경기단체 협력 등을 통해 선수 중심의 경기 운영 준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대회관리 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등 첨단 ICT 올림픽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회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에 숙박시설 확보, 고품질 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수촌·미디어촌의 차질 없는 건설과 숙박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 인프라 구축, 특별교통대책 수립 등 완벽한 교통종합대책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올림픽 준비 및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 상황입니다.

개·폐회식 등 대회 문화 행사가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대회 상징물 개발과 가용 매체를 최대한 활용한 전략 홍보로 대국민 올림픽 붐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케팅 활동을 통한 재원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스폰서 모집 집중 기간을 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에 통신 등 일부 분야의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라이선싱 상품 개발과 올림픽 상징 기념주화 발행 등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조세 감면입니다.

조직위는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의무가 있어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600억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개정안 발의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탄력적 조직 관리 및 우수 인력 운영 관련입니다.

오지 근무, 재취업 문제,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우수 인력 충원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대회 종료 시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조직위 인사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조직위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내 스폰서십을 통해 조달해야 하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조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정부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개최도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경기장 건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기장은 모두 1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겠습니다. 2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경기장은 6개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8개 경기장에 총 699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205억 원이 필요합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6개 노선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5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556억 원이 필요합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활용 대상 경기장은 11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설상경기장 3개,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빙

상경기장이 모두 8개입니다.

현재 사후 활용 주체와 계획이 결정된 곳은 여섯 곳입니다. 한 곳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결정 시설 4개소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법을 조기에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특구 내 민자 유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해 올립니다.

8쪽 특구개발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정부가 지정한 올림픽특구에 대해서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국비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5% 이상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9쪽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추가 승인 건입니다.

대회 관련 인력, 장비 그리고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추가 7개 노선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회 관련 시설 조기 승인과 국비 지원을 건의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지사님,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권성동 위원 요즘은 세 분 간에 이렇게 논의를 하면 빨리 의사 일치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잘 안 들리는데요.

○권성동 위원 어떤 현안에 관해서, 올림픽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세 분 간에…… 세 분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권성동 위원 결론이 빨리 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하여튼 세 분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올림픽을 이끌어 가는 삼두마차이신데 협조를 잘 해서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사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깥에 흘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엄청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세 분이 약속한 사항은 나중에 뒤에서 군소리하거나 딴소리하지 말고 이건 내가 결정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설득하고 자신 있게 공표하고 밀고 나가 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권성동 위원 세 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올림픽 컨셉을 문화관광부나 강원도에서 또 조직위원회에서 '관광올림픽'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이런 컨셉을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강릉에 4개의 경기장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지금 284억 원, 한 300억 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다시 계획을 짜고 있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것 다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확정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아낄 수 있느냐, 어느 부분을 줄일 수 있느냐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거라서 지난번에 3자 전문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전문가들이 협의해 본 결과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자, 조정하는데 금액은 실제로 그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측에서 환산해 본 바로는, 저희 전문가들 얘기로는 전체로 따져 보면 한 600억 정도 조정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좋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또 거대한 경기장을 지어 놓은 후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사후 활용도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측면에서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견은 있습니다만 올림픽 개최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승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이라든가 별도 예산 배분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동설한에 결국 올림픽이 치러지는데, 그 추운 데 옥외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옥외 문화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연장이 필요한데,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한데 강릉에 지금 올림픽아트센터 만든다고 예산 신청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지금 아직 기재부에서 이것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KDI의 적정성검사 1 이상 나왔고 또 그 공간 이외에는 강릉에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공연할 공간이.

그러면 이런 절감되는 예산을 갖고 문화관광부도 예산 당국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이 부분은 또 하나 해 주자. 이게 문화올림픽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장관님도 가셔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지난번에 저희 차관하고 국장들이 그 관련돼 갖고 아트센터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권성동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 2차관하고 예산실장하고 또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간청을 했는데, 이게 오늘내일이 막바지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번에 확정 안 되면 공사를 올림픽 전까지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관님이 회의 끝나면…… 제가 부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 실무 차관하고 예산실장한테 다시 한 번 좀 이 부분은 올림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것 없으면 문화올림픽 치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최문순입니다.

○최동익 위원 아까 2017년 10월까지 경기장이나 이런 시설 관계를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완료되면 프레올림픽이라든가 테스트 이벤트 아무 문제없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가야지만 2017년 10월에 완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장관님, 아까 합리적·경제적으로 설계에 대한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준비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다시 재설계 뭐 하고 하면 2017년 10월까지 건축이라든가 경기장 완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문가들 의견은 완공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전문가들 의견이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동익 위원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또 결론을 내시려고 미루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혀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들 결론이 나면 또 설계·재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미 설계·재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 이미 재설계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동익 위원 다른데 대략 언제쯤부터 언제까지 완료가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내년 초면, 내년 4월·5월이면 대충 재설계들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설계변경이 4월·5월경에 끝난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2017년 10월까지는 남은 기간이 1년 반, 2년 정도 되나요? 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2017년 10월까지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판단해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동익 위원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최동익 위원 내년 4월·5월경에 재설계 끝났을 때 2017년 10월까지 경기장 건축 완료하는 것 가능합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하여튼 제대로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설계변경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시간에 완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어쨌든 장관님이나 지사님이나 2017년 10월까지 경기장 같은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합리성·경제성을 논의해 주셔야지, 공사 완공 기간을 오버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십니다.

○최동익 위원 그리고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지금 정부 추산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 SOC까지 따지면 13조가 넘습니다.

○최동익 위원 13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 13조 중에, 올림픽 기간 중에 아니면 그 이후가 되든 아까 문화·관광올림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13조 중에 문화·관광올림픽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따로 그걸 제가 데이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3000억 정도라고……

○최동익 위원 13조 중에 3000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실무 국장이나 누구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올림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지금 기본계획이, 연구용역이 1월 달에 나옵니다. 1월 달에 나오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최동익 위원 1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언제 반영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1월 달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내년 예산은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나왔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연구용역이 1월 달에 나오면 결국은 내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 그때 가서 반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장관님이 얘기한 3000억은 어디 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알겠는데 3000억은 어디다가 배정하신 거냐고요. 실무자가 대답해 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대회조직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3000억은 개·폐막식을 비롯한 금액을 조직위원회에서 계산하고 있는 게 30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문화·관광올림픽 관련 준비 예산을 물어봤는데 개·폐회식 예산을 거기다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개·폐회식

과 문화행사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개·폐회식 제외하고 얼마냐고요, 13조 중에?

문화·관광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13조 중에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그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면 3000억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300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폐회식과 나머지 문화행사 관련된 겁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개·폐회식이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직, 2018년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당장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은 전혀, 용역 나온 다음에 해 보겠다……

그렇다면 올림픽 홍보예산 얼마 잡혀 있지요,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도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동익 위원 담당 실장이나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내년에 홍보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대회 홍보를 위한 예산은 따로 편성된 항목이 없습니다.

○최동익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13조 들여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요, 토목올림픽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정부는 토목에다가 모든 예산을 투입함에도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이고 관광올림픽이 돼서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뒷받침되는 문화콘텐츠라든가 관광인프라 같은 것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하지를 않으시고 관광올림픽, 문화올림픽 하시겠다는 명분과 좋은 말만 말씀하시는데 13조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목올림픽 하시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는 이게 토목올림픽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그동안 몇 달 동안에 내부적으로 큰 홍역을 치른 것도 사실이고 혼란을 겪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강원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바흐의 어젠더2020에 맞받아서 일본이 분산 개최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왔고 아마 김종덕 장관님과 조양호 위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비교적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자료 나눠 드린 것은 문체부가 보는 문제점 또 조직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 강원도, 개최도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요, 물론 세분이 만나서 큰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강원도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정책 면이라든가 법안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올림픽 개최도시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몇십 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역할이 되든 역할이 안 되든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것은 원샷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올림픽은 국가적인 대사이고 또 국가의 이런 메가이벤트가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저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지사님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지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개최도시의 시장·군수들이 한번 모이셔서 원샷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최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올림픽도 하나하나 개별 사안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고요. 법안도 실제로 양당의 대표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것은 국가 사안이니까 원샷으로 해결해 달라고 일괄타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하기를 국무총리, 부총리님 그리고 장관님, 위원장님, 최문순 지사님, 개최도시 시장·군수께서 한번 모이셔서 일괄타결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건의드릴 것은 드리고, 재정적으로, 또 예산 관계도 타임스케줄 짜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법안도 지금 사실 2년째 묵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끄집어내서 올림픽 문제니까 일괄타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희 생각에도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통해 갖고 현재도 조율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만 법안과 관련돼 갖고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 찬성하고 있어 실제로 올해 이게 열리게 되면, 좀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오늘도 건의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국회로 돌아왔고요, 국회에 사실 컨트롤타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래도 총리님하고 관계부처 장관님이 어느 정도의 타결을 해 주시면 또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장관님, 여기 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올림픽에 대한 지향 목적이 사실은 불투명해요.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올림픽을 어떻게 치러 간다고 하는 액션플랜은 다소 있는데 문화·환경·경제·평화올림픽에 대한 액션플랜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목표지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조양호 위원장님, 평창동계올림픽의 목표지향점이 뭔지 아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염동열 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갖고 있는 목표지향점, 가령 국가의 목적, 개최도의 목적, 그 개최도시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올림픽의 전략은 문화올림픽과 그다음에 역사적 레거시(legacy)를 남길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올림픽이 올림픽 무브먼트의 기본정신입니다. 평창올림픽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목표지향점이 없어요. 우리가 소치올림픽을,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푸틴은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경제대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었고 러시아인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주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푸틴의 연고지인 고향에 적어도 철도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해서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또 런던은 레거시 올림픽으로서 런던시에, 런던은 런던대로의 국가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이 올림픽 지역을 국가의 심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목표가 있었고 런던시도 따로 레거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후지역 동부 런던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센트럴 존, 리버 존 그리고 올림픽 존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생하는 그러한 목표를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트 버로우(host borough) 지자체도 실제로 나름대로의 이런 목표를 뒀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올림픽도 실질적으로 문화 레거시, 정신 레거시, 유형의 레거시 이런 목표를 두어 갔었습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2년째 들여다봅니다마는 정확한 목표지향점이 없습니다. 어떤 올림픽을 할 것이다,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강원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개최도시를 어떻게 해서 이 올림픽을 레거시 활용과 함께 국가의 발전,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액션플랜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도, 영국도 들여다보고 있고 중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는 액션플랜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느 문서에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분 모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목표지점, 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플랜을 설정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체부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분단된 도입니다. 분단된 도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건 평화통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유일하게 가장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시설이나 SOC에 있어서나.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부담도 뒤따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 몇 달 안 돼서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목표지향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문서에도 어느 포럼에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향목표가 없습니다. 액션플랜이 없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평화올림픽, 제가 강원도지사님하고 인천에 가서 응원 며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올림픽, 전혀 지금 액션플랜이 없습니다. 문화올림픽, 액션플랜이 없습니다. 평화올림픽에 대한 액션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어도 페이퍼 정도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경기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대회 운영에 대한 플랜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강원도 개최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의 지향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저는 예산을 많이 드리자, 적게 드리자, 어떤 것을 더 추가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종합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종합디자인 속에서 움직여줘야 이것이 자중지란하지 않고 또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플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평창특위에는 그런 플랜이 나와서 여기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도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나요? 아니면……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 별문제 없이, 처음에는 좀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양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조직 문제 그다음에 경기장 건설, 사후 활용방안, 특별법 개정, 예산 확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행사입니까, 국가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가 행사입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요?

아까 앞서 최동익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올림픽을 모토로 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날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다음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차질 없이 진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평창을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

서 실질적으로 전폭적인 지원 그다음에 고민, 대안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지금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고 가장 급하게 해야 됐던 문제들이 경기장 시설과 관련된 조율이었습니다. 경기장 시설, 설계 이런 것과 관련된 조율이 우선 급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원래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경제올림픽에 관련된 그 안은 저희 나름대로 전혀 바뀐 건 없고 실제로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을 장관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김현 위원 문체부 안에 동계올림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장관님 이전에도 쭉 준비가 되어 왔던 계속사업이지요. 장관님 바뀌었다고 경기장에 대한 문제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 다른 문제를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견이 그만큼 많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가 차원의 많은 역량이 투입이 되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리에 치러지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속도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 대회가 성공리에 진행이 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앞서 법안 개정 문제도요. 법제도를 정비해야지만 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금 전에 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상수도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관련된 것의 대부분이,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시설과 관련된 이견 이것 때문에 났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게 우선 시급했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까 보고사항에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체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와도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이전 해에도 그랬고 환경단체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관계부처랑 협력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위원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문화체육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역시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지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이제 한 열 달 정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열 달에서 열한 달. 평창동계올림픽보다는 훨씬 앞당겨졌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김종덕 장관님 새로 오셨지요? 이 회의장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조양호 위원장님도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덕 장관님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앞두고 조직위원회와 또 도청과 문화체육부와 약간의 불협화

음이 있었다 이런 게 종종 거론됐는데 좀 진정이 되어 가는 분위기입니까? 조양호 위원장님도 느긋한 품성으로 잘 수습을 하시고, 어차피 상당히 걱정도 많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모든 게, 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걱정이 돼서 현장까지 쫓아가셨어요. 절대공기가 30개월인데 역산하면 지금 뭔가 좀 걱정스럽다 그런 우려를 좀 표명했거든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김무성 대표님이 다녀가신 후로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수습이 잘됐다면 다행이고 앞에 계신 세 분이 2018까지 잘 가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고서를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과 관광올림픽이다 그렇게 2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제올림픽과 환경올림픽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4개가 다 공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관광·문화…… 볼거리, 즐길거리를 잔뜩 집어넣다 보면 돈이 좀 많이 들 테고, 안 그래도 눈이 녹지 않기 위해서는 춥긴 추워야 되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즐기자면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즐길 수는 없고 그러자면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관광올림픽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접근시설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돈도 물론 많이 들어갈 테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래 된 건물, 문화적인 것, 이렇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조차도 파괴하고 뭔가 새롭고, 새로 짓고 단장하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한성 위원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나라 한옥을 철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철거소송을 벌이면 또 철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법원에서. 그런데 그 철거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직은 건물이 낡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지 말라' 그러면 더 낡아가지고 고풍스러우면 그때는 철거해도 된다, 이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풍스럽고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인식을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평창도 시골의 농촌스러운 모습, 초라하고 비록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다듬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잘 보여 주면서 우리 한국 농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경과 위기에서 자연과 또 조화되면서 산다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환경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경제올림픽이 되고.

그래서 문화와 관광과 또 경제와 환경을 다 아우르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더 많겠습니다만 우리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펜시아 이게 지금 국가에서 매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김진선 위원장님이 추진하다가 분양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어디서, 지사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매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한성 위원 그게 참 걱정거리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다가 식수댐 문제는 해결되어 갑니까? 환경단체하고 좀, 식수댐?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식수댐 문제도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되어 갑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한성 위원 거기다가 중봉스키장 환경 파괴 문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으로 환경단체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한성 위원 했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여성 코스를 하나 없애서, 남녀 코스가 각각 있었는데 합쳐서 같이 쓰는 코스로 만들면서 하여튼 환경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됐습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강원도지사 최문순 계속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지만 대부분 합의가 되어서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한성 위원 어쨌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반대하는, 우려하는 입장의 의견도 일견 타당할 수 있으니까 잘 타협하고 또 포용해서 잘 추

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박혜자입니다.

글쎄요,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렀지만요.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이 제일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계올림픽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스포츠종목 중에서 동계종목이 좀 취약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참여도 사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낮지요. 그래서 보통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선진국형 스포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가르쳐줬던 교훈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종목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또 어찌 보면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열기가 스스로 그런 동계스포츠종목들을 즐기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최동익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지금 우리가 13조 몇 천억을 예산으로 잡고 있지만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하드웨어 중심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좀 다변화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당장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동계스포츠종목의 꿈나무들도 좀 키우시고 국민들의 참여열기도 좀 적극적으로 키워 주시고 또 크고 작은 국내 대회도 개최를 해서 동계스포츠종목에 대한 참여도를, 열망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좀 병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오늘 꼭 좀 드려야 될 얘기가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 문제, 장관께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기금투표권 안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체육진흥기금 중의 일부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문제랑 또 골프장 부가세 문제하고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박혜자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장관님 뜻에 안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원칙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혜자 위원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아까 골프장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하겠다라는 법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한 400억 정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 거고. 또 만약에 이 레저세가 통과가 되면 상당 부분 액수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기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안건으로 이미 상정이 됐고 이것이 파행으로 인해서 지금 심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막으실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그래서 체육회의 김정행 체육회장, 서상기 생활체육회장, 여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국제경기를 앞두고 있는 조직위원회나 또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이 고갈되면, 경기장 건설비의 65.6%가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옵니다. 또 진입도로 건설비의 70%가 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레저세가, 말하자면 안행부 쪽에서 붙게 되면 굉장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대로 평창올림픽의 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냐 우려가 좀 생겨요.

그래서 정말 힘을 합쳐서 저희 교문위에서는 진즉에 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레저세 부과를 어찌되었든 막아야 되는 공동전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에서 자꾸 지난번에 보니까 스포츠산업 쪽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데 스포츠산업보다는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호회를 지원하셔서 그런 관심사, 참여도를 높여서 정말 이번 계기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체육 종목의 다변화를 꾀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레저세부터 막는 노력을 장관께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안행위 간사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레저세가 모든 지역에 같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나눠진다 한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경기도라든지 몇 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을 진흥시키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라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중이라서 특위에서도 좀 항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혜자 위원 특위에서도 특위 전체 위원님들 의견서도 내야 되고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장서서 이끌고 계시는 세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 함께 세 분이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을 함께 모아 주시고 또 긴밀하게 공조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상당히 안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 분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시간이 없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견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최근에 IOC에서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김기선 위원 이 부분은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2020플랜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조양호 위원장님께서도 좀 말씀하시겠지만 바흐 위원장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에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자는 그러한 뉘앙스의 보도도 나오고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나 강원도나 조직위원회가 IOC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추진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장관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IOC의 어젠다 2020은 올림픽 무브먼트에 역행되는 과다한 비용 지출과 유산에 대한 것이 미비한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평창은 이미 모든 시설이 시작이 되었고 모든 준비가 계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바흐 위원장한테 "평창은 계획대로 진행할 거다" 하고 얘기를 했고 저는 어젠다 2020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유연성을 갖고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IOC에서 2020 어젠다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추진을 하든지 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기존의 계획대로 한 치의 차질이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또 지사님, 이 부분은 분명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국민 모두가 또 강원도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내든 해 가지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이기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정부와 상의해서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이미 바흐 위원장한테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장관님, 우리가 항상 과거의 선례를 좋은 점을 따서 반영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과거 올림픽의 사례, 아시안게임의 사례, 충분히 검토하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도,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주로 경기장을 짓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앞서서 얘기했지만 문화, 그다음에 관광,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부분, 이러한 부분이 미처 준비가 안 되었거나 이것은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대부분 보여집니다.

시민 의식을 고양시킨다거나 문화, 예술 그다음에 관광 이것을 연계시켜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체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인천아시안게임 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단순히 그 안에서 운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일어나고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저 엄청난 경기장 적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쟁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관광 문화 이 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문화관광연구원과 스포츠 쪽 연구원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 문화에 대한 용역을 이미 냈고 그래서 이게 마스터플랜이 없이 그냥 막 난잡하게 진행될 경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행사는 못 치르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년 초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경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이 지방채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무리하게 주경기장 건설하고 도로망 확충하면서 1조 48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당장에 2018년까지 원금 이자 포함해서 875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인천시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주경기장도 연간 80억의 적자를 면하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부처가 지방의 재원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국비를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를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평창올림픽도 국비지원 확대되지 않으면 강원도가 재정자립도 2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4개 경기장에 대해서 설계내역 기준 775억 절감 요구한바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임수경 위원 오늘 준비상황 보고서에 보니까 지방비 2814억이지만 추가로 경기장 설립 해서 최소 3500억 원 이상 지방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일방적인 예산 절감 요구 어떻게 근거를 하신 것인지 또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 그다음에 더불어서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지금 예결위 내년도 예산이 진행 중인데 절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비 지원 확대에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가라고 해서 어디서 돈이 마구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가면서 올림픽을 치르자는 게 저희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수경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지방에다가 전가를 하시느냐고요. 지금 강원도가 건설 추진 중에 있는 4개 경기장에 대해서 설계내역 기준 3739억에서 775억, 20% 절감을 요구하셨잖아요, 얼마 안 놔두고? 이게 실현 가능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강원도지사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장관님하고 잘 상의해서 적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20% 예산 절감 가능합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조직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폐회식 어디서 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평창 횡계에서 할 예정입니다.

○임수경 위원 평창 횡계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잘 아시지요? 올림픽헌장에는 개·폐회식은 개최도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은 개·폐회식 장소가 다른 곳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정부 주무부처가 현안을 조정해야 되기는커녕 갈등을 유발했던 측면들에 대해서 대회조직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는 없고……

○임수경 위원 하셔야지요. 올림픽헌장 정신에 기초하셔서요. 올림픽헌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당국자가 무책임하게 발언을 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못 지고 있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래서 이번에 해결해서 평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임수경 위원 결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평창으로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요, 올림픽헌장 정신에 기초해서요. 개·폐회식은 반드시 개최도시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지요?

입장을 안 갖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유감인데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입장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미 결론난 것 가지고서 다시 얘기하기가 뭐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요, 강원도 환경올림픽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리왕산 관련해서 조직위원장께도 해당이 되는 질문인데 제가 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환경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데 지금 일부를 해제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전제로 여기에 경기장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야산이 아니지요? 산삼, 임금 진상품 등의 역사적 문제, 환경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스키장 건설을 위해서 잘라야 되는 나무가 5만그루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특히 예산 주체, 생태 복원비용이 지금 1081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 부분 어떻게 논

의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국비 지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라는 강원도 보도자료를 좀 봤는데요, 혹시 강원도지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강원도 현안이기도 하니까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 부분은 아직 사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주체와 내용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행됨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게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지금 현재 식생전문가 상주하고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와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새누리당 박대동 위원입니다.

세 분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 한번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갔었습니다.

○박대동 위원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동 위원 세 분 다 마찬가지이시긴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보시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셔야 돼요.

특히 조양호 올림픽위원장님, 미숙한 경기 운영이라든지 교통 수송체계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평창올림픽 할 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꼼꼼히 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닙니까? 현 대통령님의 임기 말이고 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준비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처럼 원만히 잘 진행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 줄 필요가 있고 그걸 문화관광, 아까 올림픽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를,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면 우리 대회 위상을 알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각각 소임대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양호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IOC 입장과 관련해 봤을 때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예선전이라도 남북한 간의 분산 개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될 소지도 있지 않나 하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평창 그대로 가시는 것이 확고하신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창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그거는 원칙이 돼 있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남북협력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IOC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저는 따를 방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선수들이 온다 하면 그것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키시되 이론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개막식·폐막식에만 주력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나 세계인들이, 관광객들까지 포함해서 동참하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별로 이게 붐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장관님,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문화행사들이 이것과 연관돼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도 문화예산과 관광예산이 올림픽예산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그 지역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산이라든지 관광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거기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동 위원 유관부처 간에 많이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강원도지사님 오셨는데 평창은 좀 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산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수송·교통 문제라든지 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꼼꼼히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올림픽 때, 아시안게임 때 사전에 여러 번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엉망이었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시고, 특히 11개 경기장을 신설하면서 보니까 현재 관리 주체가 확정된 게 아까 말씀대로, 보고대로 하면 6개, 하나가 협의 중이고 4개가 미결정이고……

이게 경제올림픽이 돼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이 재정 파탄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런 올림픽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현재 알펜시아 문제도 있고 과거에 각 주최한 도시들마다, 그런 국가들마다 사후관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지신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 4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빙상경기장하고 개·폐막식장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개·폐막식장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를 하셔서 안티에이징센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진전시켜 나가고 빙상경기장은 대안을 마련하거나 안 되면 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동 위원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세 분이 평창올림픽을 맡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조양호 위원장님, 취임하셔서 위원장으로서 제일 좀…… 역할 분담이 있는데, 문체부·강원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아는 조직위원장은 호스트 시티(host city)에서 만들어 놓은 경기장을 운영하고 전체 올림픽을 스무드(smooth)하게 운영하는 것이 조직위원장의 임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경기장이 기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착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재 역할을 했고 모든 것을 해서 지금은 많은 것이 진척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래서 제가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목표는 올림픽이 제대로 끝나고, 성공적으로 끝나고 전 세계인이 평창을 기억하고 강원도를 기억하고 대한항공, 대한민국을 기억해서 지도 위에 평창이라는 도시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조직위원회의 목표입니다.

○황영철 위원 회사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냥 '대한'이 '대한항공'으로 나오고……

(웃음소리)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전에 김진선 지사가 물러나고 조양호 위원장께서 취임할 때 강원도와 연고가 매우 약해서 그런 부분의 걱정을 지역에서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동계올림픽은 국가적 대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양호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스폰서계약 체결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양호 위원장이 좀 탁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

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저를 믿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경기장 운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관람객이나 선수들이 왔을 때 서비스 문제, 안전 문제, 위생 문제 또 숙박시설 등 모든 문제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외적인 부분들, 그렇죠? 또 큰 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양호 위원장님의 또 다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인데 이 시설들의 발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시설 발주와 공사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황영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황영철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어떤 특정 시설을 발주하거나 시공할 때 방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문체부에서 지시하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로는 설계 변경한 거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기관이, 물론 다 협조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입장 차이가 있거나 그럴 때 결국 책임지는 것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 책임을 맡겨야 이것이 하루속히 진행될 거라고 봐요.

테스트 이벤트를 치르려면 우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얘기하지만 2017년도 초에는 모든 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제대로 모든 시설들을 완공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란 때문에 저는 발주라든지 시행이 늦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듣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황영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 서로가, 3개 장님들이 다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도에게 맡겨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삼자 간에, 이게 합리적인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영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건축 전문가들의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대서 우리가 진행을 해애 돼서요.

○황영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황영철 위원 계약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문체부가 강원도하고 입장을 달리해서 시행이 늦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시행을, 발주를 하는 책임이 강원도에 있다면 큰 틀에서 정해 줄 건, 이런 규모라든지 시설의 이런 것들은 정해 주더라도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지난번에 삼자 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을 출신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 분, 특위에서 뵙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견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은 조직 운영, 경기장 건설, 사후활용방안 마련, 특별법 개정, 예산 확보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또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덕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관석 위원 이게 국가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치르려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난 10월 30일, 한 달 전쯤 되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평창을 방문해서 이제 실질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관석 위원 필수시설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어렵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꼭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10월 5일 날 김무성 대표도 평창을 방문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이나 현지에서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법과 예산으로 잘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언론 보면 대회 반납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국제경기대회를 하다 보면 항상 초반에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있어 왔던 것이긴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워낙 어렵게 유치를 했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조양호 위원장께서 새로 오셔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박자와 리듬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는 성공개최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청와대 국무회의에 오면 또 부처 간에 얘기할 때 보면 예산절감 명분으로 설계변경, 국고보조 축소 이런 것들이, 이런 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정부의 뜻이고 장관의 의지이고 대통령의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난번에 3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기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간 안에 우리가 마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올림픽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전문가들에 의해서 만약에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끼는 게 당연히 국민들 세금 아끼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충돌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데 둘 다 그냥 어설프게 다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도 못 맞추고 예산 절감도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이 충돌되지 않고 두 가지 다 상생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경기장의 여러 관리운영 주체와 관리방안 결정 못 한 것도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이제 사후활용방안도 얘기되는데 사후활용방안이 다른 경기장, 인천도 아시안게임 하고 나서 보니까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다그치기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사후활용방안은 경기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회 준비와 함께 미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종합계획 중의 하나인데 그냥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일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준비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문화올림픽과 관광올림픽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같이 되는 게 사후방안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은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사후활용방안 중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안 된 것이 4개이고 그중에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개·폐막식장하고 스피드스케이트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후

활용방안이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헐어버리는 쪽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은 국제경기 하면서 국고니까 당연히 잘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마다 어떤 흥행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안게임도 그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특위에서 평가할 때도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절감이 너무 앞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슈로, 그게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물론 항상 우리가 기조로 가져가야 할 문제지만 다른 이슈 부각이 좀 안 되면서 운영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 흥행 포인트를 제대로 못 찾게 되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흥행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윤관석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 법률 문제를 빨리 결론짓고 그다음 단계 지금 말씀하신 흥행 문제, 문화·관광올림픽 문제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조직위원장님과 다음 단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조양호 위원장께서 새로 맡아서 의욕 있게 준비하고 계신데 평창동계올림픽만의, 여러 가지 대회마다 있는 예산 절감, 공기 제대로 맞춰서 완공하는 것도 다 좋은데 평창동계올림픽의 어떤 흥행에 대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거지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 말씀, 국회에 오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저도 3자 합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공기가 절대 지연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경비 절감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경비 절감을 해 가지고 경제성 있는 올림픽을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은 장관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기에 대한 것을 절대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을 위해서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 흥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 부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때까지, 제가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지만 4개월 동안에 이 경기장을 제 시간 내에 완공시키는 데 모든 초점을 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위원들이 동계스포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부터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선진국에서 올림픽을 성공했다 하는 것은 장애인올림픽의 성공 없이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인드셋(mindset)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아마 말씀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면서도 체육인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잘될 것 같습니다. 조양호 위원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많은 박차를 가하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또 장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빠르게 다 되셨고요. 지사님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계시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더반 가서 지사님 사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인한 책임을 갖고, 지사님 지금 자꾸 언론에 강원도민들 어려움도, 고민도 다 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위원장님도 오셨고 장관님도 오셨고 또 세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꼭 조율을 하셔서 발표하시고 하는데 강원도 도민들이 자꾸 언론에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될 때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어떻

게 우리가 수습할 건가, 그래서 지사님이 잘 책임져 주셔서 약속한 50과 25·25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또 좀 생각하더라도 안고 가면서 일단 이 준비하는 데 문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사님이 좀 더 많이 애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유치하고 난 이후에, 혹은 유치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다 나왔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얘기들이 다시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야말로 앞으로 한 발을 떼서 개선해 나가면서 진전된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언론에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반납하겠다는 이야기, 산림을 너무 훼손해서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지사님께서 좀 어려워도, 또 강원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고 잘 설명하시고 이해를 당부하고 해서 평창올림픽이 정말 위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장관님 새로 오셔서 지사님하고 함께 성공하는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지사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교체가 되었고 조양호 위원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위원장 되신 이후로 국회가, 이번에 회의는 처음 참석하시는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처음입니다.

○안민석 위원 회의 말고는 오신 적이 있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무슨 일로 오셨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으로서 인사 겸 국회의 협력을 위해서 왔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 만나셨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여러 분 만나 뵈었는데요.

○안민석 위원 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여러 분 만나 뵈었는데 아마 안 계셔서 못 봤을 겁니다.

○안민석 위원 제 방에는 안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야당이라고 안 오신 건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전화라도 하셔서 서로 협력을 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위원장님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지금 내부의 인사가 있잖아요. 이 인사가 기존에, 특히 경기팀의 거기 직원들도 사실은 동계종목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는 것인데 왜 인사발령을 미루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인사발령 미룬 게 없는데요.

○안민석 위원 밑에 실무자 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이번에 공고가 났고 11월 1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이미 면접 다 끝났고 발표 날짜도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어제 발표를 했고요.

○안민석 위원 어제 했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예, 일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안민석 위원 경기부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경기부장은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안민석 위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저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전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다른 어떤 꼼수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저는 하게 돼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지원자 네 분이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실장 김기홍 예.

○안민석 위원 네 분 전부 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분인데 왜 안 했을까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심 가지 않겠어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동계종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이것을 안 뽑았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지요.

보세요. 경기부장, 적합자가 없어서 안 뽑았다고 하는데 다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분 모두 다 적합자예요. 그런데 네 분 모두 다 아무도 적합자가 없어서 안 뽑았다는 것은 뽑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뭐 이런 것 다 알지요.

위원장님, 기업 오래 해 보셨으니까 딱 느끼는 감이 오지 않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다시 보고서는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부매니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인원의 한 3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고 경기쪽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자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포지션으로 하느냐가 필요하고 또 운동선수로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안민석 위원 제가 이후에 누가 뽑히는지 아주 주시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제가……

○안민석 위원 지금 들리고 있는 그분이 된다고 하면 제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저는 누가 될 건지 아직, 처음 보고받았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 제가 듣고 있는 제보가 틀렸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 인사는 지금 흐름상 수상해요. 지금 경기부장을 빨리 뽑아서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안 뽑고서 이것을 보류시켰다는 것은 내부에 피치 못할 사정이 지금 있는 거지요.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안민석 위원 지난 시절 동안에 경기장 논란, 그다음에 경기 장소 논란으로 하세월을 다 보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을 만들어서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정말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경기장 빨리 마무리 짓고……

○안민석 위원 런던올림픽 같은 경우에 시설 사후활용도 잘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올림픽 이후에 시설 연계, 콘텐츠 활용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아주 모범사례로 되는데 이것을 좀 빨리 가서 이 논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후에 콘텐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자꾸 정부도 머뭇머뭇하고 이것 안 하니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것 빨리 주선해서 이 이야기를 올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런던올림픽 사후활용하고 있는 것, 콘텐츠 활용하고 있는 것을 한번 빨리 보러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팔을 걷어붙이고 빨리 연내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웃지만 마시고요.

○위원장 박주선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활용 관련해서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뭔

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을 맡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올림픽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좀 시대에 맞게끔 이 명칭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 평창 시설물 관리주체가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아, 제가 이것 미처 검토 못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야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옆을 돌아보며)

아, 장관님이 아까 말씀드렸나요? 답변 들으셨어요, 장관님 답변?

○박혜자 위원 장관님이 찬성한다고 했어요.

○안민석 위원 지사님도 찬성하시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방으로 찾아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차례인데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임수경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올림픽과 환경·경제올림픽의 조화 및 평화올림픽의 지향 필요성, 경기장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의 정상적 진행 및 기한 내 준공,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치밀한 연구검토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취약한 동계 종목에 대한 육성 및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IOC 올림픽 정책에 대한 책임 있고 명확한 대응,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안 되도록 국비 지원 강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예산 및 법안 심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많은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위험도 없지 않아서 또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동계올림픽은 수회에 걸쳐서 유치를 하려고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노력의 결과 결실을 맺은 유치였습니다. 또한 이 올림픽은 강원도에서 개최는 되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올림픽이고, 특히나 또 조양호 조직위원장님은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우리 한국체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는데 부임하신 지 이제 4개월 됐습니다만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회조직위원장 그리고 강원도지사 등 관계자 모두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지적과 조언을 유념해 주시고, 대회 관련 조직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및 사후관리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그리고 조양호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 성 동	김 기 선	김 현	박 대 동
박 주 선	박 혜 자	안 민 석	염 동 열
윤 관 석	윤 호 중	이 강 후	이에리사
이 한 성	임 수 경	최 동 익	황 영 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 진 대
전문위원	김 한 근
전문위원	박 용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체육정책관	우 상 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조 양 호
기획조정실장	김 기 홍